

김별아의 문학과 삶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걸 냉지, 속은 뜻 냉지는 속담처럼 내 배를 앓아 냉은 아이가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올해 열여덟 살,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아이는 별스럽게도 ‘오래된 것’을 좋아한다.

처음엔 남자아이들이 대개 한 번씩 거쳐가는 자동차에 대한 취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터쇼를 찾아나며 최신형 자동차들을 섭렵하던 아이는 어느 때부터인가 ‘uld卡’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단종 되어버린 모델인 포니, 스텔라, 브랜드 등을 어찌다 발견하기라도 하면 환호를 울리며 사진을 찍어대고, 지금도 갖고 싶은 첫 차로 최신형 차도, 외제차도 아닌 1970년대에 생산된 ‘브리사’를 꿇는다.

특정한 것에 열광하는 ‘마니아’ 기질이라곤 전혀 없는 엄마로서는 그저 놀라울 뿐이지만, ‘오래된 것’에 대한 아이의 취향은 자동차에서 그치지 않았다. 뮤지컬 ‘맘마미아’를 본 뒤로 아이는 스웨덴 그룹 ‘아바(ABBA)’의 팬이 되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열살, 아바가 해체될 때로부터 십여년이 지나 태어난 너석이 멤버들의 신상이며 해외공연에 소속된 때위를 줄줄 외우고 다녔다.

아바의 레퍼토리가 생각보다 풍부하지 않

느니 어찌니 투덜대더니 끝내 그 이름도 찬란한 팝의 전설 ‘비틀즈’로 관심이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껏 칠월 년이 넘도록 비틀즈의 ‘광팬’을 자처하며 마침내 지난 겨울엔 런던과 리버풀로 ‘성지 순례’까지 다녀오기 이르렀다.

음악에 대한 취향만 유니온은 끝더니 영뚱한 대로 불뚱이 뛰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에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군산선 입구역에 다녀온 후부터 시골 간이역이 아이의 새로운 관심거리가 된 것이다.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광주선, 태백선, 정선선, 장항선, 경북선, 문경선 등 전국 곳곳에 숨은 간이역들을 찾아다니는 기행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급수탑이 있는 호남선 연산역이며, 1914년에 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이라는 전라선의 춘포역을 찾았을 때 아이의 얼굴은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덩그러니 오래된 역사가 남아있을 뿐 주변의 풍광은 황폐하기 이를 데 없다. 역무원이 없고, 이따금 완행차가 정차만 하는 간이역은 도로망의 발달과 급행열차의 등장으로 점차 그 기능을 잊고 폐쇄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

이는 웬일인지 그 폐허가, 적막이, 누추한

흔적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개인의 취향이니 반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방학 미륵사지에 다녀온 뒤로 살금살금 ‘폐사지(廢寺址)’에 관심을 두려 할 때는 기어이 말릴 수밖에 없었다. 간이역을 찾아 산간 오지 골짜기를 뛰는 것으로도 모자라 주춧돌 몇 개로 남은 옛 절터라니...

나중에 직접 차를 몰고 찾아다닐 게 아니라면 집안 식구들을 총동원한 기행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애원해야 했다. 아이는 그제야 “하긴 나도 내년에 고3이니...”하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입시가 끝나면 문화재로 지정된 103개 폐사지는 반드시 찾아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숨기지 않았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엄마의 취향과 상관없이, 반짝거리는 신제품들에 열광하는 또래와 무관하게, 대체 무엇이 아이를 오래된 것, 소용을 잃은 것,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들로 이끄는 걸까? 아이는 ‘속도’의 경쟁이 싫다고 한다. 더 빠르게 빠르게만 달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싶다고 한다.

유행가보다는 옛 노래가 좋고, 급행열차보다는 완행열차가 좋고, 넓은 도로와 으리으리한 새 건물보다는 조붓한 골목과 낡은

옛집이 좋다는 것이다.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라는 공식이 버젓이 통하는 세상이다.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당연히 허물어버려야 한다고 믿는다. 속도의 멀미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찾기 시작했지만, 모이통통신 광고는 전자책 ‘느림의 미학’을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더 빨리 다운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조종 혹은 역공한다.

세상의 속도에 훌쓸지 않기 위해,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위해 아이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쓸쓸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외로운 만큼, 쓸쓸한 만큼 더욱 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들이 견뎌온 시간을 상상하는 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옛날 자동차, 흘러간 노래, 허가 되어버린 간이역과 절터... 하지만 그것들이 빛났던 순간과 그때의 사람들을 떠올리면 시간은 다만 흘러버리는 것이 아닌 듯하다. 아무리 빠르게 가도, 조금 느리게 가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곳에 다다르리니.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아들의 새로운 마음이 사랑된다.

〈소설가〉

종교칼럼



김관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수능도 마케팅하는 소비 사회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더 다양한 수능 특수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유명 백화점에서는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식약청의 식용 가능 품목으로 인정받아 ‘아예 행운을 드세요’라고 수능 대박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네잎클로버 일곱 개를 베개 안에 넣고 자면 학점합격’은 속설이 퍼지면서 하루 100개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네잎클로버 회분 1개가 1만 5000원에 판매되었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웃음을 나왔습니다. 예전 시골 본당에 있을 때 사제관 앞 잔디를 살리고자 그렇게도 많이 뽑아 버렸던 클로버가 (비록 네잎클로버는 아니었더라도) 그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롯데 전용티슈 만점 세트’가 판매되고 있고, ‘수능 걱정을 모두 가져간다’는 ‘워리돌 걱정인형’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는 ‘최극강 소비사회’라고 명명하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영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올리버 제임스가 쓴 ‘어플루엔자’는 이러한 소비지상주의의 의미의 ‘불나죽(不落粥)’으로 마케팅해 오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일종의 현대 질병인 ‘어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루엔자(Affluenza)’란 ‘풍요로운’의 뜻을 지닌 어플루언트(Affluent)와 ‘유행성 감기’라는 뜻의 인플루엔자(Influenza)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담긴 내용 중에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이기적 자본주의’와 그것이 양산해내는 ‘시장형 성격’의 인간이 만나 만들어진 질병이다. 이기적 자본주의는 기업의 성공을 전적으로 주식 시장의 주가로 판단하고, 공공서비스를 모두 민영화로 전환시키며, 기업 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부자들에게 대한 과세를 제한한다. 그리고 소비와 시장의 힘이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마치 지난 정권 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을 예언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문득 ‘정부정책이 이려하다 보니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도 이기적인 자본가에게는 하나님의 시장이 되고, 그렇게 열도당토 않는 소비를 부추기는구나’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기고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자산관리 능력

가락질하기도 민망한 일입니다. 상품 이름 조차도 어려운데 수익률이며, 환율, 수수료, 환급률 등을 조합되어 쓸어지는 상품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예기치 못한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금융을 포함한 자산관리 상담은 자산 규모가 작은 많은 투자자가 뛰는 길드, 젊은 세대는 고령 세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보험사 FP(재무설계사)로부터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주거래 금융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둘째, 금융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요즘 은행, 증권, 보험회사별로 금융상품, 부동산, 상속, 증여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언론사 주관 미니쇼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회사 명예를 걸고 이를 있는 대표 강사가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준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부나 가족 동반 참석이 늘고

있는 추세로 가족의 재무 목표설정, 자산확대, 증여, 상속 등 제무설계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기우기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와 니즈가 비슷한 소비자들이 몇 명 단위에서 몇십 명 단위로 모여 금융회사에 강의를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문, 전문잡지를 구독하거나 금융회사 사보를 정기적으로 받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이나 전문잡지에는 금융상품 소개는 물론이고 상품구조나 내용, 수익률, 리스크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령별, 금융 자산별, 투자 성향별 분석과 주체 상품, 금융회사별, 수익률, 민원 순위 등이 공개되며 일반인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의 사보는 금융정보와 금융 IQ를 높이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세미나 초청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넷째, 금융감독원 등 공공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장수시대에 자산을 모으고 불리고 쓰고 물려주는 등의 올바른 자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이승현
KDB 생명 광주지역본부장

요즘 동양그룹 계열 회사체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 금융회사 등이 다양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스스로 자산관리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자산(금융, 부동산, 연금, 상속 등)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첫째, 금융 주체의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단받고 처방받듯이 금융 또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감장에서 모 국회의원이 ‘왜 동양그룹이 PC(개인용컴퓨터)를 잘못 팔아서 이 난리다’고 했다는데 이는 CP(기업어음)상품 이름을 잘못 알아서 일어난 혼란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조차도 자기회사 상품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에서 누구를 손

社說

무등산 국립공원되면 더 좋아진다더니

광주·전남의 진산(鎮山)인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이후 관리가 더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탑방로 훼손이 심해지고, 유명 약수터가 폐쇄되는가 하면 대표 절경인 서석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개다가 광주시로부터 무등산 관리를 넘겨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고압적인 자세로 지역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업무행태마저 보이면서 지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탑방객의 마른 목을 쑤셔주던 꼬막재와 늦재 등 2곳의 약수터가 관리 부실과 불고갈 등을 이유로 폐쇄된 무등산에는 현재 7곳의 약수터만 남았다.

탑방로 관리도 엉망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61개(38.9km) 탑방로 중 망가진 곳은 33개(19.08km)에 이른다. 특히 광주시민이 많이 찾는 옛길 구간은 훼손이 심각해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관리공단의 시민 정서를 무시한 업무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론수렴 등 절차도 없이 천연기념물이나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에 속하는 서석대 일원의 탑방로 정비공사를 진행했다가 문화재청 등의 훼손 저지를 받고 시설물을 철거했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목재 테크와 전망대 공사 등을 하던 중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예산 낭비한 셈이다.

무등산은 산으로서의 역할에 앞서 광주의 어머니이자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1000m 이상의 산이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우리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여망했던 것은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에 있었던 것이 부실 관리와 난개발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관리공단의 그릇된 행태는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복원이라는 존립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 삼식 이하의 일탈행위를 계속한다면 차라리 손을 떼라. 광주시민, 전남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 출신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이룬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빙곤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정의 경제력을 끌어올려 건전한 시민으로 생활토록 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청이 최근 지역 거주 다문화가정 161세대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조사했더니 70세대(43.5%)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어서 궁핍하게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초 생활보장수급대상자 월평균 소득인 정액 154만 6000원(4인 가족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동구 사례는 다문화가정의 실태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구뿐만 아니라 전체 다문화가정의 실태가 비슷할 것으로 유추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다.

다문화가정의 빙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이질감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통해 통역원이나 강사,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 과정에서 전문식당 운영 등을 들 수 있겠다.

정부와 차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원만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듬어 같은 국민으로서 존중해줘야 한다. 다문화가정 구입금지 없이 자발적으로 도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無等鼓

2001년 봄 일본 지바현 마츠도시의 5300세대 대규모 주택 임대단지인 도키와다이라에서 고도사한 50대 후반 남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그는 이혼 후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고 이웃과의 교류도 없었다. 주택임대료와 공과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고, 집에 불이 켜진 상태였기에 다들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동구 관계자는 “집세가 연체되자 관리인인 그의 집을 찾았다. 죽은지 3년만에 남성은 백골의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

사건 후 주민들은 자체 회장을 만들어 ‘고독사 제도작전’을 시작했다. 고독사가 의심되는 상황을 차지하여 알리는 긴급통보체계를 마련했고 ‘생생살롱’을 열어 고독 노인들을 불러 모았다. 마츠도시의 고독사 예방 운동은 일본 열도로 확산돼 일본 고독사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